

生活科學 風土造成은

— 天賦的인 科學的才能을

尊敬하는 閔寬植 會長任 그리고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來賓과 市民 學生 여러분!

오늘 福祉國家 建設의 起點에서 國民生活의 科學化를 위한 第2回 科學化 模範事例 發表會에서 本人이 激勵의 말 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周知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날에 있었던 混亂과 停滯를 克服하고 온 國民의 和合으로 새 歷史創造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激變하는 國際情勢에 對處하면서 內的으로는 새로운 秩序를 確立하고 모든 國民의 念願인 安定과 豐饒의 새 福祉國家建設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歷史的 時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大悟覺醒하고 예지를 모아 努力하므로써 期必코 이 國家의 目標를 達成하여야 하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는 悠久한 5千年 歷史를 가진 文化民族으로서 世界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燦爛한 文化를 지녔던 民族입니다.

일찌기 瞻星臺를 세우고 測雨器를 만들어 天文과 氣象을 익혔으며 金屬活字를 發明하여 學問을 陶冶했던 優秀한 民族으로서 天賦的인 科學的 才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先進國에서와 같이 合理的이고 能率의 이며 創造的인 科學的 思考를 涵養시키지 못하고 實利보다는 名分만을 앞세우는 空理空談만을 일삼아 科學的 才能을 近代 科學技術로 繼承發展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急進하는 世界思潮와 거듭되는 經濟發展計劃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우리나라도 科學技術의 重要性을 새롭게 認識하고 各種 專門 研究所를 設立하며 많은 人材를 養成하는 등 科學技術發展의 風土를 漸次 다져 가고 있습니다.



李 正 五
科學技術處長官

科學技術 振興에 緊要

近代科學技術에 繼承, 發展 —

이러한 科學技術의 向上은 近年에 와서 産業의 高度化를 促進하는 先導役이 되고 있으며 高度産業社會에 對處하고 科學精神의 涵養을 爲한 國民生活의 科學化運動이 推進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한나라의 科學技術 振興은 이를 擔當하고 있는 研究所나 몇사람의 科學者의 努力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國民이 科學技術을 尊重하여 學問으로서 뿐만 아니라 日常生活에서도 이를 活用할때 우리나라 科學技術은 先進化될 것입니다. 科學技術의 競爭이 더욱 熾熱해지고 있는 國際社會에서 낙오되지 않고 先進隊列에 들어가기 爲해서는 科學技術의 急速한 發展은 勿論 國民生活의 科學化로 科學技術의 革新的 發展을 위한 汎國家的인 風土造成이 이룩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오늘의 이 科學化 模範事例發表會는 그 어느 모임보다도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고 하겠으며 이 자리에서 發表되는 優秀事例들이 全國에 擴散普及되어 國民生活 科學化運動이 더욱 알찬 成果를 거둘수 있게 되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中에도 科學技術의 重要性을 共感하시고 滿場의 盛況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과 스스로 體驗한 事例를 發表하기 爲하여 參加하여 주신 여러분께 感謝 드리면서 이 行事を 主管하여 주신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任職員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깃드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0年 12月 12日

科學技術處長官 李 正 五